

서울특별시 인공지능 기본조례안

(왕정순 의원 발의)

의안 번호	2205
----------	------

발 의 년 월 일: 2024년 10월 16일

발 의 자: 왕정순 의원(1명)

찬 성 자: 김 경, 김기덕, 김성준,
김영철, 박강산, 박수빈,
박철성, 송도호, 신복자,
이상훈, 이원형, 임종국,
최기찬, 홍국표 의원(14
명)

1. 제안이유

- 현재 급속하게 발전하는 인공지능 기술이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음. 서울특별시는 이러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인공지능 기술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필요함
- 인공지능 기술의 사용 확대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알고리즘의 편향성, 윤리적 문제 등 다양하고 새로운 형태의 시민의 권리 침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안전을 담보할 제도적 장치가 요구됨
- 글로벌 인공지능 개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특별시의 경쟁력 강화와 미래산업으로서 인공지능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공공서비스의 효율성 제고와 품질 향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국회에서 인공지능 기본법률 제정을 논의 중이나 서울특별시가 선제적으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국회의 인공지능 기본법률 제정을 촉진시키고 서울시 조례 운영 경험을 통해 현실에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입법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과 기본원칙(안 제1조~제2조)

- 나. 용어의 정의(안 제3조)
- 다. 시장의 책무(안 제4조)
- 라. 서울특별시 인공지능 기본계획 수립(안 제6조)
- 마.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안 제8조)
- 바.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안 제9조~제10조)
- 사. 지원사업(안 제16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없음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별첨)
- 다. 기타 : 없음

서울특별시 인공지능 기본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을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 및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시책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인간에 대한 안전성과 신뢰성을 제고하여 시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발전할 것
2. 사업자의 창의정신을 존중하고 안전한 인공지능 이용환경을 조성하도록 추진될 것
3. 개인 또는 단체가 성별, 나이, 민족, 종교, 사회적 신분, 경제적 사정 또는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이루어질 것
4. 사회·경제·문화와 일상생활 등 모든 영역에서의 변화에 대응하여 모든 시민이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시행될 것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공지능”이란 학습, 추론, 지각, 판단, 언어의 이해 등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한 것을 말한다.

2. “인공지능기술”이란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하드웨어 기술 또는 그것을 시스템적으로 지원하는 소프트웨어 기술 또는 그 활용 기술을 말한다.

3. “고위험영역 인공지능”이란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의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영역에서 활용되는 인공지능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을 위한 시책을 추진할 때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 등이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기본계획) ① 시장은 서울특별시 인공지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공지능 정책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2. 인공지능 정책의 분야별 시책
3.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에 필요한 자원 조달 방안

4. 인공지능의 공정성·투명성·책임성·안전성 확보 등 신뢰 기반 조성 방안

5. 인공지능 윤리원칙의 확산 방안

6. 인공지능기술에 대한 동향 조사 및 평가

7. 그 밖에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가이드라인) 시장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인공지능의 윤리적 개발 및 이용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인공지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인공지능 정책의 공익성 및 윤리성 평가에 관한 사항

3. 인공지능 이용 및 개발 관련 법과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가이드라인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5. 인공지능 이용 및 개발을 위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에 관한 사항

6. 고위험영역 인공지능 규율, 관련된 사회적 변화 양상과 정책적 대응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9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인공지능 정책 관련 서울특별시 공무원
2.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3. 인공지능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새로 시작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

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인공지능 정책을 담당하는 과의 과장이 된다.

제16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내외 인공지능기술 동향 및 제도의 조사
2. 인공지능기술의 연구·개발, 시험 및 평가
3. 인공지능기술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4. 인공지능기술 관련 창업 및 기업 지원
5.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행정 서비스 개선 및 스마트도시 구현
6. 그 밖에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자치구,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서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 정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중앙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법인·단체 등과 적극 협력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인공지능 기본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인공지능 기본조례안

연번	조항	추계대상 여부	판단 내용
1	제6조(기본계획)	×	○ 기본계획의 수립은 기존인력을 활용함으로써 별도의 비용은 발생하지 않아 비용추계에서 제외함
2	제7조(가이드라인)	△	○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현 시점에서 구체적인 사업추진에 대한 규모, 절차 등이 수립되지 않아 기술적 추계가 어려움
3	제8조~제9조	△	○ 위원회 구성에 따라 비용이 발생하지만 현재 개최 횟수, 위촉직 위원수 등이 정해지지 않아 참고자료로 제시함
4	제16조(지원사업)	△	○ 인공지능 지원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대상, 범위, 기준 등이 정해지지 않아 현 시점에서 기술적 추계가 어려움
5	제17조(협력체계 구축)	×	○ 통상적으로 협력체계는 기존 인력을 통하여 추진하는 내용으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비용추계에서 제외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3. 미첨부 사유

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제3조제2항)

- 서울특별시 인공지능 기본조례안은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에 따른 가이드라인, 위원회 설치, 지원 사업 등에 대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하고 있어 현 시점에서 위원회 운영 및 관련 지원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대상, 범위, 기준 등이 정해지지 않아 기술적 추계가 어려움
- 다만,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산출자료¹⁾를 참고자료로서 제시함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
 담 당 관 오희선
 추계세제팀장 김중헌
 추 계 분 석 관 이홍래
 ☎ 02-2180-7952
 e-mail : hong1004@seoul.go.kr

1)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총 비용 : 28,500천원 = 참석수당(24,000천원) + 업무추진경비(4,500천원)

- 참석수당 = 24,000천원 = 수당단가×지급인원×연2회×5년 = 200천원×12명×2회×5년

※ 참석수당 단가 : 「서울시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2시간 초과 200천원 적용

※ 지급인원 : 위원 15명 중 공무원 3명은 제외

- 업무추진경비 = 4,500천원 = 경비단가×지급인원×연2회×5년 = 30천원×15명×2회×5년

※ 업무추진경비 단가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 등의 가액 범위) [별표1]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의 가액 범위(제17조 관련)에 따라 30천원 수준으로 적용